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해외시장 철수와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사업 규모와 수익성 악화로 소매금융(retail banking) 부문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보도함.

-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테니스(Huw van Steenis)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사업 단순화 및 경쟁력 있는 사업 부문 집중을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국가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 강화와 현지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은행들이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함.

■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의 씨티그룹, HSBC, 영국의 주요 은행들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해외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고 있음.

- 2014년 10월 씨티그룹은 일본을 비롯한 이집트, 코스타리카, 헝가리 등을 포함한 11개국¹⁾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발표함.
 - 이미 씨티그룹은 스페인, 파키스탄,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였으며, 계획대로 추가 철수가 진행된다면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사업 국가는 24개국으로 감소할 것임.
- HSBC도 러시아, 콜롬비아 등 20개국 이상의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여 소매금융 및 자산운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40여 개국으로 감소함.
- 영국 Barclays 은행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의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하였고,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의 금융 자회사인 GE Capital도 유럽 주요 소매금융 사업 일부를 철수할 예정임.
-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도 최근 미국 내 자회사인 Citizens Financial을 매각하였으며, 향후 12여 개국 소매시장에서 사업 철회를 계획 중임.

1)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등 남미 국가를 비롯하여 이집트, 일본, 체코, 헝가리, 괌 등.

■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자기자본이익률 하락 및 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고전한 대표적인 시장으로, 이들의 사업 철수가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은행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둔화와 은행권의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²⁾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축소함.
 -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은 국내에서 2014년 상반기 12억 7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350여 개 지점 중 약 73개 지점을 폐쇄함.
 - 씨티그룹은 2014년 상반기 우리나라 사업부에서 4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56개 지점을 폐쇄함.
- 또한, 부실대출 상각 압박, 수수료 제한 등의 정부 규제 강화 및 우리나라의 소매금융 부문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이 글로벌 대형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HSBC는 우리나라 도매금융 부문에서는 입지를 강화한 반면, 소매금융 분야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어 2013년 14년 만에 철수함.
 - 씨티그룹은 영업 손실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매금융 부문 중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부문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과거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보험회사들도 수익성 악화와 규제 강화로 철수한 사례가 있음.

- 2007년 11월 예비인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 중이던 독일 DKV³⁾는 우리나라 규제 강화, 건강보험 시장 과당경쟁 및 질병보험의 시장성 감소에 따른 수익구조 취약으로 2008년 2월 철수함.
 - DKV는 서브프라임 부실 이후 시가총액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 건강보험회사 인수 및 인도와 이탈리아 시장 진출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우리나라 투자에 신중을 기하게 됨.
- 2011년 6월 독일계 보험사인 에르고그룹(Ergo Group)은 에르고다움다이렉트손해보험을 매각하며 국내 시장에서 철수함.
 - 2008년 다움다이렉트를 인수한 에르고그룹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를⁴⁾ 계속 기록함.
 - 자동차보험요율을 비롯한 국내 감독 당국의 자동차보험 시장 규제 강화 및 경쟁 심화로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2) 우리나라 은행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5년 18.4%를 기록하였지만 2013년 2.7%로 하락함. 기준금리도 2014년 10월 사상 최저인 2%로 하락하며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 DKV는 독일 뮌헨리 그룹의 자회사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영의료보험 시장성을 조사해 왔으며, 자본금 300억 원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음.

4) 에르고다움은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2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67억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38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향후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비롯하여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주주, 규제 당국, 현지 경쟁 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FT, WSJ 등)